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미 재무부에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임대료 구제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 발표

뉴욕 주,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주, 재무장관 **Janet Yellen**에게 자금 지원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서안](#) 발송

*뉴욕에서 자금 미지원 상태로 남아 있는 85,000건 이상의 임대 지원 신청*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와 함께 연방정부에게 초기 연방배분을 다한 고소득 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임대구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는 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구제 수요와 절박함이 가장 큰 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임대료 구제 기금 재할당을 위한 방법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 초기부터 저는 아직 대유행으로 회복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13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료 보조금을 1억 달러 증액했고, 임대 바우처 금액을 늘리는 것을 법제화했으며, 입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체계적인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담하고 달성 가능한 제안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현실은 아직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재무부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구호 기금이 뉴욕에 재할당되는 데 실망했고, 이번 주 우리의 긴급 임대지원 프로그램 포털이 이미 재개장한 것을 감안할 때 재무부에 이러한 절차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개입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정 구제에 대한 잘못된 희망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한 노력에 동참해 주신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주에 감사드립니다."

**Murph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주와 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시켰지만, 아무도 임대 비용을 지불하거나 근근이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인 연방 기금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뉴저지 가족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기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들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80억 달러로 추정되는 미사용 긴급 자금 재분배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주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할당하는 방법론이 각 주에 있는 저소득 임대인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주 인구 총계에 기반으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뉴욕주는 13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었고, 총 104,000 달러 이상을 집주인에게 지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 정부는 약 161,000개의 신청에 적용되고 약 85,000개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 20억 달러를 모두 의무화했습니다.

주 정부는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원 명령으로 지난주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완전히 다시 개설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신청 잔고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기금이 없을 경우 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에게 연방 정부의 개입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중요한 재정적 구제에 대한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8월 말에 취임한 후,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합리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즉, 지불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료주의적 절차를 없앴습니다. 뉴욕주는 프로그램 개설 후 6개월 이내인 11월에 연방정부 배분을 모두 마치기 전에 20억 달러 이상의 임대 지원을 의무화하거나 분배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이후 재무부에 9억 9,600만 달러의 재할당 자금을 요청했고, 이는 수만 명의 추가 지원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말, 재무부는 뉴욕이 최초 재할당을 통해 2,7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뉴욕주가 요청한 금액의 3퍼센트도 못미치는 금액이며 약 1,960개의 신청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OTDA 부 커미셔너인 Daniel W. Tie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재무부에 시기적절하게 호소한 것은 아직도 팬데믹의 재정적 영향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추가 기금 없이, 우리는 계속되는 세계적인 건강 위기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애쓰는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임대료 경감 요청을 허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재무부가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하 위해 다른 주들과 협력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